Fun 하게 즐기는 고양시 문화 축제

뻔뻔(Fun-Fun)한 마켓고양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뻔뻔(Fun-Fun)한 마켓고양'은 버스킹 공연과 영화제 등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한다. 조용한 일상에 한줄기 시원한 활기를 불어넣고 싶다면, 한 달이 저무는 토요일 밤 고양관광정보센터 뒤뜰로 향해보자.

글. 사진. 이예슬(고양시 관광과 청년인턴)

'낮은음자리' 공연을 관람하는 시민들

뻔뻔한 마켓을 열었습니다

뻔뻔(Fun-Fun)한 마켓고양은 플리마켓을 비롯한 버스킹 공연, 옥탑방 영화제 등의 문화예술 행사를 제공하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다. 2021년 12월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 고양관광정보센터 뒤뜰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을 즐길 기회를 선사한다.

지난 6월 26일 처음으로 진행된 뻔뻔(Fun-Fun)한 마켓고양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었는지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1 고양시 관광상품 플리마켓

플리마켓에는 고양시 브랜드의 관광기념품 업체와 지역 소상공인, 지역 예술가들이 참가하여 여러 가지 지역관광상품을 홍보했다.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수공예 판매자들은 이날 시민들에게 가죽 공예, 한지 공예, 수제 비누 및 향초 만들기 등의 일일 체험 기회를 마련해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이 외에도 많은 지역 소상공인들과 예술가들은 소비자들과 직접 교류하고 반응을 살피며 수공예품과 화훼 등을 판매하고 홍보하였다.

#2 거리 버스킹

버스킹 공연에서는 지역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장을 마련했다. 통기타 밴드인 '소나무', 어쿠스틱 기타를 통해 공연하는 '낮은음자리', 전자 바이올린 퍼포머 '그레이스', K-Pop 댄스그룹 '베이비스'는 지난 6월 버스킹 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활기찬 들을거리를 제공했다. 많은 시민이 버스킹 공연을 관람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잊고 있던 공연 문화를 즐길 수 있었다. 뻔뻔한 마켓고양에서는 버스킹의 주요 공연인 댄스와 밴드 연주를 보고 들을 수 있으며, 8월부터는 '마임' 등과 같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추가될 예정이다.

#3 고양 옥탑방 영화제

고양 옥탑방 영화제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밤 8시부터 고양관광정보센터 루프탑에서 진행된다. 영화제에서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만날 수 있다. 지난 6월에 열린 고양 옥탑방 영화제에서는 애니메이션 영화 '업'이 상영됐다. 고양 옥탑방 영화제는 고양관광정보센터 인스타그램(@goyang_tic)을 통해 무료로 예약할 수 있다. 선착순 20명까지 예약을 받는다고 하니 미리미리 예약해 기회를 놓치지 말자.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는 뻔뻔(Fun-Fun)한 마켓고양

연말까지 진행될 뻔뻔(Fun-Fun)한 마켓고양은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생활에 목말라 있는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시장의 반응 역시 확인하기 어려웠던 지역 소상공인과 예술가들도 판매와 홍보활동을 통해 시장의 직접적인 반응을 살펴볼 기회를 제공한다.

뻔뻔(Fun-Fun)한 마켓고양은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릴 예정이다. 답답한 일상에 소중한 추억이 되어줄 뻔뻔(Fun-Fun)한 마켓고양에 참여하여 특별한 선물을 가져가길 바란다.

뻔뻔(Fun-Fun)한 마켓고양 전경

고양 옥탑방 영화제

뻔뻔한 마켓고양

운영 2021년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위치 고양관광정보센터 일대(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1-1)
오시는 길 정발산역 2번 출구에서 하차 후 일산문화공원 방향으로 82m 직진
'옥탑방 영화제' 예약 고양관광정보센터 인스타그램(@goyang_tic)
홈페이지 https://www.goyang.go.kr/visitgoyang/index.asp
문의 고양시 관광과(031-8075-3408)